

일본어 잡지 『조선(朝鮮)』과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의 조선인 기고자들

—기초자료 조사—

유재진*
jaejin@korea.ac.kr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데이터로 본 '조선(급만주)의 조선인 기고자들
- III. 조선인 기고자들이 쓴 한국문학
- IV. 마치며

Abstract

本論では、日本語雑誌'朝鮮'と'朝鮮及滿洲'における朝鮮人寄稿家及び彼等が書いた記事に関する基礎資料調査を行った。

調査結果、'朝鮮(及滿洲)'における朝鮮人が書いた寄稿文は、雑誌全体の比率から言ってもとても少く、色んな分野の上流エリート層が寄稿し、親日的な人物が多く、記事の増減が総督府の統治政策と連動している点を確認した。'朝鮮(及滿洲)'における朝鮮人寄稿文は、芸術分野が一番多く、中でも文学論や韓国文学を紹介する記事が特に多いのが特徴的である。1936年南次郎総督の赴任後、'朝鮮(及滿洲)'でも朝鮮人による露骨な親日且つ体制迎合的な記事が掲載され始め、朝鮮人寄稿家の<声>は最早植民地統治の「拡声器」役割を担うようになったが、そのような中でも独自の<声>を出していたのが、朴冥善の一連の近代韓国文学論であった。

Key Words : '朝鮮'、'朝鮮及滿洲'、朝鮮人寄稿家、韓国文学

("The Chōsen", "The Chōsen and Manshu", Korean writers, Korean Literature)

* 고려대학교 조교수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10-362-A00019).

I. 들어가며

한말의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내항이 시작되었고 러일전쟁후의 통감부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인들의 내항은 본격화하여 많은 이들이 조선에서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일본인들의 조선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한국진출과 한국인의 동화를 목적으로 한 재조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잡지도 간행되기 시작하였다.¹⁾ 그 중에서도 '조선(朝鮮)'('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의 전신)은 한일병합 이전인 1908년 3월부터 식민지통치 말기인 1941년 1월까지 약 34년간 간행된 식민지조선 최장수의 종합잡지이다. '조선'은 그 당시 일본인들이 쓴 조선관련서적이거나 한국인이 쓴 일본어학습서, 지리서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던 일한서방(日韓書房)에서 월간지로 발행되었고 1912년 1월(통권47호)부터 잡지명을 '조선급만주'로 개제하였다.²⁾ 본지는 편집 겸 발행인은 '조선 일 때는 모리야마 미오(森山美夫)였으며 '조선급만주'로 개제한 후에는 사쿠오 슌조(釈尾春彦)였으나, 발행 초기부터 주간은 기쿠치 겐조(菊地謙城), 편집장은 사쿠오였으며 편집방침이나 잡지의 성격에는 주필격인 사쿠오의 의향이 많이 반영되었다. 본지는 1910년 도쿄(東京)에 지국을 설치하여 현지기자를 두는 등 "재한일본인의 여론형성과 함께 내지 일본인의 관심을 촉구할 목적"³⁾으로 "일본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⁴⁾고 한다. 이 잡지의 특징은 재조일본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내지 일본인들이 한국에 이주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 역할을 해왔다는 점과, 통감부나 총독부의 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문제 등에 대한 비평을 시도하여 재조일본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과 상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적

1) 개화기 때 재조일본인이 발행한 일본어 잡지에 관한 자료는 檀国大学校附設東洋学研究所(2003~2004) 開化期 在韓日本人雜誌資料集, 国学資料院을 참고.

2) 조선의 해제는 檀国大学校附設東洋学研究所(2004) 「解題」 開化期 在韓日本人雜誌資料集:朝鮮1, 国学資料院, pp.vii-x v를 참조.

3) 임성모(2007) 「월간 조선과 만주(朝鮮及滿洲)해제」 조선과 만주 총목차·인명색인, 어문학사, p.ix.

4) 최혜주(2005) 「한말 일제하 사쿠오(釈尾春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14.

인 태도를 표명했다는 점이다.⁵⁾ 이처럼 '조선' 과 그 후신 '조선급만주' 는 민간 지로서 통감부·총독부와 때로는 거리를 두면서도 조선통치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었다.

식민지조선의 직접적인 통치자이면서 내지 일본인과의 미묘한 차이를 보였을 재조일본인들의 의식이나 입장, 양태를 고찰할 수 있는 절호의 대상인 '조선(급만주)' 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다소 활성화를 보이지만 관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그 수가 많지는 않다.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집⁶⁾이나 목차집⁷⁾의 간행 외에는 재한일본인 저널리즘연구의 일환으로 '조선지실업(朝鮮之實業)' 과 '조선(급만주)' 를 비교분석한 기무라 겐지(木村健二)의 연구⁸⁾와 편집자 겸 발행인이었던 샤쿠오 슌조(釈尾春菴)를 중심으로 재조일본인의 조선인식이나 만주인식을 '조선' 을 통해 고찰한 최혜주의 일연의 연구⁹⁾가 있다. 그 외 선행연구로서는 총독부 기관지인 '조선' 과 '조선(급만주)' 에 게재된 한국근대문학을 고찰한 가지이 노보루(梶井陟)의 연구¹⁰⁾와 '조선' 의 문예란에 주목한 정병호의 연구¹¹⁾가 있어, 잡지의 규모나 연구 가치에 비해 그 숫자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가 밝혀낸 '조선(급만주)' 에 관한 정보, 특성 등을 참고하면서 종래의 선행연구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이 잡지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정병호의 연구로서 이전의 연구들이 주로 '조선(급만주)' 에 관한 내용소개 및 잡지의 특성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면 정병호는 '조선' 의 「문예」란에 주목하여 「문예」란이 “콜로니얼 담론이 지나는 규율·위계·배제·차별이라

5) 위의 책, p.14.

6) 檀国大学校附設東洋学研究所, 앞의 책, 참조.

7) 임성모, 앞의 책, p.ix.

8) 木村健二(1989) 「在朝日本人ジャーナリズムの活動」, 『在朝日本人の社会史』 未来社, pp.152-207.

9) 최혜주(2005) 「한말 일제하 샤쿠오(釈尾春菴)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5-56.

최혜주(2008) 「잡지 《朝鮮》(1908~1911)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45호, 한국근현대사학회, pp.80-115.

최혜주(2010) 「잡지 『朝鮮及滿洲』에 나타난 조선통치론과 만주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35-76.

10) 梶井陟(1982) 「雑誌 『朝鮮』ならびに 『朝鮮及滿洲』における朝鮮文学の意義—特に近・現代文学をめぐって」, 『富山大学人文学部紀要』 vol.7 富山大学人文学部, pp.47-83.

11) 정병호(2008) 「20세기 초기 일본의 제국주의와 한국 내 <일본어문학>의 형성 연구—잡지 『조선(朝鮮, 1908-11)의 「문예」란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学』 37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409-425.

는 일의(一義)적인 소리를 뛰어 넘는 또한 그것만으로는 수렴되지 않는 극히 이중적이고 다성적인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¹²⁾는 것을 밝히고 이제까지 평면적으로 파악되어 왔던 '조선'을 복층 또는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문예』란을 잡지의 “일의적인” 콜로니얼 담론과는 구별되는 “다성적인 공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식민지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재조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간행된 이 잡지 속에서 가장 “이중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은 피식민자인 당시의 조선인들이 아니었을까.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매우 소박한 의문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일본어 잡지 『조선(급만주)』에 피식민자의 ‘목소리’는 과연 존재하였을까? 혹시 존재했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 ‘목소리’는 조선통치 35년간 어떻게 변화해 갔을까? 라는 소박한 의문점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본 연구는 『조선(급만주)』의 조선인 기고자들 및 그들이 쓴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한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하고자 한다. 재조일본인의 여론 형성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이 잡지에서 조선인들의 글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밝힘으로써 『조선(급만주)』의 조선인상, 즉, 그 미디어가 어떠한 피식민자의 ‘목소리’를 선택·발신했는지를 통해서 『조선(급만주)』가 조선인이라는 타자를 어떻게 표상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잡지 발행자측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기고가인 조선인들의 식민지주의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조선(급만주)』의 조선인 기고가와 그 기사의 고찰을 통해서 식민지기의 조선인들한테 있어서 일본어 글쓰기가 어떠한 의미를 갖았는지, 또한 그들이 일본어를 통해서 조선이나 일본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는지를 엿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데이터로 본 『조선(급만주)』의 조선인 기고자들

본 장에서는 『조선(급만주)』의 조선인 기고가와 그 기사들에 대한 양적 조사와 통계 등 기초적인 자료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조선(급만주)』의 한 권당 페이지 수는 약 100페이지 전후이며, 잡지 호수는 창간 당시에는 제○권○호의 체

12) 위의 책, p.425.

제였으나, 1910년 3월호(25호)부터 통권체제로 바뀌었다.¹³⁾ 본래는 월간지였으나 일시적으로 1912년 6월(통권52호)부터 12월(통권65호)까지 월2회(1일, 15일) 발행한 적도 있어, 발행기간 34년 동안 총398권을 간행하였다.

그렇다면, 총398권의 '조선(급만주)의 기사 중 조선인 기고가¹⁴⁾의 글은 도대체 몇 편이나 있을까? 그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인 기고가를 몇 백이 넘는 필자들 속에서 선별해 내야한다. 본명이나 본명에 가까운 호를 사용한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그 외의 외국인을 구별해 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이 시대에는 많은 기고가나 기자들이 필명, 예를 들어 이니셜 필명(K·K·K, X·Y·Z, SY生 등)이나 히말라야산인(ヒマラヤ山人), 장백산, 凸凹生, △○生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필명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원을 알 수 없는 필명¹⁵⁾은 제외하고, 조선인명으로 기고한 기사와 익명의 기사라 하더라도 필자가 본문에서 조선인임을 밝히고 있는 기사, 조선인의 담화를 옮긴 기사, 그리고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성씨를 사용한 필명(예를 들어 李書房, 朴書房 등)의 기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선인 기고가의 기사를 선별한 결과, 조선인 기고가들의 기사는 '조선(급만주) 총398권(총 기사 수 약 11,940편¹⁶⁾) 중 94편¹⁷⁾이며, 이는 5권에 1편의 비율로 조선인 기고문이 실린 숫자이다. 이처럼 '조선(급만주).

13) 잡지의 지면은 조선의 경우 「시사평론」, 「논설」, 「주장」, 「잡찬(雜纂)」, 「한성인물평판기」, 「방문록」, 「실업자료」, 「부원(富源)」, 「연구」, 「문예」, 「지방통신」, 「시사일지」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조선」의 지면구성은 일본의 유력 잡지인 「태양(太陽)」이나 「일본급일본인(日本及日本人)」을 모방한 것으로 권두화(卷頭画)로 당시의 통감이나 내각대신의 사진을 게재하고 이어지는 「시사평론」이나 「논설」로 이어져서 당시의 시사문제나 안건에 관한 잡지의 논평을 펴로하였다. 지면구성이 매호마다 동일한 것은 아니고 「잡찬」과 「문예」란을 제외한 그 외의 항목은 호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지면구성은 조선급만주 제61호부터 점차 구분이 없어져 기사의 나열이 눈에 띄게 되었다.

14) 조선인이 쓴 글을 모두 기고문으로 단정한 것은 조선인 기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필명은 약 180개 정도가 있다.

16) 각 호마다 기사의 수는 물론 일정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는 약 40편에 가까운 기사가 실릴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는 20편 남짓일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호가 약 30편 내외의 기사를 실고 있어 총 기사 수는 총권 수 398에 30을 곱한 대략적인 숫자이다.

17) 이 숫자는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원 파악이 불가능한 필명이 쓴 기사를 대상 외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외한 익명의 기사 중에 조선인이 쓴 기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물론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숫자는 줄어들 일은 없으나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에서 조선인 기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다. (조선인 기고자들이 쓴 기사를 표로 정리해서 본 논문 말미에 게재하였다. 부표 참조.) 이는 이 잡지가 재조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창간한 독자층과 성격이 뚜렷한 잡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 잡지가 갖고 있는 조선인 혹은 조선인식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숫자라 할 수 있다. 즉, 재조일본인들의 조선 진출과 통치에서 조선인들의 ‘목소리’-그것이 비록 협력적이든 저항적이든지 상관없이-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급만주)’에 기고문을 실은 소수의 조선인 기고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일제강점기 때 기고문을 쓸 정도로 일본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었던 조선인은 당연히 상류 엘리트층으로 한정될 것이며, 잡지의 성격 상 일본의 조선통치에 반항적인 민족주의 인사나 항일인사는 물론 배제되었을 것이다. 조선인 기고가 62명¹⁸⁾ 중 현재 당시의 직종이나 직책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표 1>에 있는 41명이다.

<표 1> ‘조선(급만주)’의 조선인 기고자들의 직종

이름	직종	이름	직종	이름	직종
李軫鎬	朝鮮總督府學務局長	金大羽	朝鮮總督府社會教育科長	張承斗	朝鮮總督府殖産課
李源圭	總督府編修學務局	李基世	演劇·言論活動	俞万兼	總督府宗教課
韓竜相	漢城銀行取締役	韓翼敬	漢城銀行支配人	崔完錫	漢城銀行
金鎮玉	韓一銀行支店長	金商範	京城電氣會社	金正祿	東亞証券調查部
李遠雨	大陸經濟研究所	印東秀	東拓社員	某鮮人	官吏
張憲植	忠清北道知事	朴重陽	忠北知事	鄭雲復	帝國新聞社長
徐廷億	每日新報體育部主任	金井鎮	京城放送局第二放送部長	崔在鶴	培材高等普通學校教諭
鄭大鉉	普成高等普通學校長	李周淵	第一高等普通學校教諭	崔載瑞	京城帝國大學講師
李孝石	平城大同工業專門學校教授	金明學	城大醫學部	尹喜永	中樞院囑託
崔淳文	弁護士	某氏談	韓國法官	尹相弼	在奉天陸軍騎兵大尉
金斗禎	時局対応全鮮思想報國連盟幹事	金翰洙	天主公會庶務	金默照	博文寺常在鮮人布教師

18) 한 기고가가 여러 글을 기고한 경우도 많아 편수에 비해 기고가 수가 적다.

金素雲	文學士	金東仁	文學士	玄永燮	文學士
金尹錫	文學士	徐恒錫	演劇人	金明淳	文學士
丁陶希	文學士	石鎭衡	企業家		

*1 친일인명사전이나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밑줄을 그었다.

위의 <표 1>를 보면, '조선(급만주)에 기고문을 실은 조선인들은 지방지사를 포함한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관료, 은행이나 상사에 다니는 경제인, 신문이나 미디어 관계자, 교수·교원 등의 교육인, 변호사·법관 등 법률인, 그리고 소설가·시인 등의 문인 등이다. 그 중에서도 조선총독부에 근무하고 있었던 조선인과 경제관계자, 그리고 문인들이 수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들 기고가 중 친일인사로는 '친일인명사전' 19)에 이름이 기재된 김정록(매국)20), 장헌식(중추원), 정대현(중추원), 박중양(제국의회), 이진호(제국의회), 이원규(관료), 김대우(관료), 석진형(관료), 윤상필(군인), 최재서(문화), 서항석(문화), 이기세(언론) 등이며 이외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106인 명단」21)에 들어가 있는 정운복과 '친일파99인' 22)에 수록된 유만겸23), 현영섭24), 한용상25), 김동인 등 18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선(급만주)에는 다양한 분야의 일류 엘리트

19) 민족문제연구소편집부(2009)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 괄호 안의 구분은 「친일인명사전」에서 구분하고 있는 명칭이다.

21)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은 2006년 12월 7일, 대통령소속의 친일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일제강점기 초기에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관련자 106명의 목록이다.

22) 반민족문제연구소(1993) 「친일파99인」 1~3, 돌베개.

23) 유길준의 장남 유만겸은 일본에 유학하여 1917년 도쿄제국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20년부터 죽을 때까지 총독부의 관료로 지낸 인물로 병합이후 양성된 친일 한국인 고급 관료의 대표격인 셈이다. (반민족문제연구소(1993) 「유성준, 유만겸, 유억겸」 친일파99인 1, 돌베개, p.251. 참조)

24) 현영섭은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이 되길 꿈꾼 광적인 황도주의 친일문사로 일본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조선어의 말살을 주창했으며, 조선인의 행동, 사고, 생활양식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부정한 인물로 1937년 녹기연맹의 일본문화연구소 근무,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주사, 1940년 황도학회 이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반민족문제연구소(1993) 「현영섭」 친일파99인 2, 돌베개, pp.66-67, 참조.)

25) 한용상은 이완용의 조카로, 1903년 한성은행 총무, 1908년 동아척식주식회사 조선인 설립위원이었고 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조사부장을 겸임, 1925년 경성상버회의소 부회두, 1937년 관동군사령부 사무총장을 역임한 인물로 식민지 예측경제화의 첨병역할을 철저히 해온 인물이다.(반민족문제연구소(1993) 「한상룡」 친일파99인 1, 돌베개, pp.131-140, 참조.)

조선인들이 기고를 하였으며 특히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관료나 경제관계자, 문인들이 많은 것이 특징적이고 친일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대변천에 따른 기고문의 양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년대별로 살펴보면, 잡지를 창간한 1908년부터 한일병합 이전까지 게재된 조선인이 쓴 기고문은 총 7편이며, 1910년대는 5편, 20년대는 24편, 30년대는 51편, 1940년과 잡지가 폐간된 1941년 양 해에 게재된 기고문은 총 7편이다. 비율로 따지면, 1930년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940년대와 병합이전의 각 2년 간, 그리고 1920년대, 1910년대의 순이다.²⁶⁾

이처럼 시대변천에 따른 기사수의 양적 변화를 개관해 보았을 때 특기할 만

26) 다음은 조선인이 쓴 기사가 게재된 연도별 기사수와 연대별 기사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시기	기사총수	연도	기사수
合併以前	8	1908	5
		1909	2
1910年代	5	1912	1
		1919	4
1920年代	24	1921	2
		1922	1
		1924	2
		1925	2
		1927	6
		1928	5
		1929	6
1930年代	51	1930	3
		1931	1
		1932	3
		1934	3
		1935	2
		1936	8
		1937	12
		1938	7
		1939	12
1940年代	7	1940	6
		1941	1

한 점은 한일병합 이전 2년간의 기사수가 7편인데 반해, 병합이후 10년간의 기사수가 겨우 5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 5편 중 4편은 1919년에 게재된 기사이고, 1912년부터 19년까지의 7년간 '조선(급만주)'에는 조선인이 쓴 기사가 전혀 실리지 않았다. 다른 년대에서도 매년 조선인이 쓴 기사가 실린 것은 아니고 때때로 기사가 없는 해도 있었지만, 6년간 단 한편의 기사도 없었다는 점은 전 발행기간 중 눈에 띄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10년대에 조선인의 기고문이 아예 없었던 것은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강압적인 '무단통치'나 그 일환으로 행해진 조선인들의 언론 탄압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되는 1919년 이후 다시 조선인의 기고문이 실리기 시작한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3.1민족운동을 계기로 조선총독부는 원활한 식민통치를 위해서 무의미하게 조선인들을 자극하지 않고 조선인들의 식민지에 대한 반감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통치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총독부의 통치정책에 연동하듯이 '조선(급만주)'에서도 1912년 이후 6년 만에 “조선인으로서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 (중략) 내지인 관민은 앞으로 조금 더 일반 조선인에게 친절해지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조선인의 일본에 대한 반감은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농후해져 조선은 점점 더 불안한 곳이 될 뿐이다”²⁷⁾라는 어느 총독부의 조선인 관료의 글이나, “합병 이후의 치적을 돌이켜보면 일본의 정책은 일시동인(一視同仁)주의를 내세우면서 조선을 식민지시하고 있었다. (중략) 관공리의 대우를 차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조선인들을 열등민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²⁸⁾는 친일파 관료 장헌식의 글 등—비록 이들이 말하는 조선인들의 불평과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재조일본인이 반성해야한다는 논조가 총독부가 재조일본인들에게 조선인들에 대한 노골적이며 무의식적인 경멸감 표출과 차별의식을 자제하라는 당부를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을 실게 된다.

이후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서히 조선인들의 기고문 수도 늘어나 1935년

27) 某鮮人官吏談(1919) 「今後の朝鮮を如何に治むべきか：朝鮮人の不平」 朝鮮及滿洲, 第144号, pp.42-44.

28) 張憲植(1919) 「朝鮮の時局に就て：内鮮人共に反省を要す」 朝鮮及滿洲, 第149号, pp.32-34.

에 조선인의 기고문이 2편이었던 것에 반해 이듬해인 1936년에는 8편으로 증가하고 그 이듬해인 1937년에는 12편이나 게재된다. 이처럼 1936년을 경계로 조선인 기고자들이 쓴 기사는 급증해 갔지만, 노골적인 친일이나 체제영합적인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1936년 전후부터이다. 예를 들어 1936년 9월호의 '조선급만주(제346호)에 같이 실린 "침이랑 놀기에는 적합한 조선어의 절멸을 원한다. 나는 생명의 원리를 파악한 올바른 언어로써 일본어를 요구한다. (중략) 나는 일본인이 되고 싶은 것이다. (중략) 내선융화가 아니라 내선일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다"²⁹⁾는 현영변의 광적인 일본 숭배주의나 "일본정신 하에서 교육받고 일본문화에 침윤하여 일본어로 느끼고 일본어로 우는 조선인이 일본정신과 반대 방향으로 달릴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일본정신이 황도주의를 주간으로 하면서 대외적으로 세계정의를 지도하고 대내적으로 사회정의를 최고 원리로 할 때 모든 부족, 계급 간의 폐제를 거척할 때, (중략) 그리고 모든 군벌, 이벌(吏閥), 재벌, 당벌 내지 번벌(藩閥), 학벌, 숙벌(塾閥)이 소흥을 잠재우고 대동에 따를 때, 그리고 전면적인 공동에 따를 때, 그리고 전면적 공동체 이상실현에 매진할 때, 조선인은 미증유의 감격을 느끼며 일본정신을 환호하며 일본문화를 구가할 것이다."³⁰⁾는 김윤석의 글들이다. 내선일체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어를 폐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통해서 조선인을 모두 일본인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현영변의 "일본인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열렬한 친일파"³¹⁾의 문장이나 민족말살정책 시기에 흔히 볼 수 있는 틀에 박힌 문장으로 일본정신을 찬양한 김윤석의 체제영합적인 문장들이 1936년을 경계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조선인 기고자들의 기고문의 수는 증가해왔지만, 1910년 "나는 배일이라 불려도, 어떠한 속박을 받더라도 일한합방이나 합병에는 어디까지나 반대합니다"³²⁾라고 한 '대한매일' 기자 양기택의 토로나 "하지만 조선인으로서 독립할 수 만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수는 없다. 굳이 다른 나라 사람한테 통치 받아 기분 좋을 리가 없다. 조선인은 조선인 스스로 나라를

29) 玄永燮(1936) 「政治論の一齣=文學者の立場から=」 『朝鮮及滿洲』 第346号, pp.44-46.

30) 金尹錫(1936) 「日本精神と朝鮮人」 『朝鮮及滿洲』 第346号, pp.39-43.

31) 반민족문제연구소(1993) 「현영섭」, 앞의 책, p.66.

32) 渡邊天倪(1910) 「朝鮮人士の対日感想」 『朝鮮』 第26号, p.15.

만들고, 조선인의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은 조선인으로서의 당연한 희망이다. 그러나 상식 있는 조선인으로서 그런 일이 오늘날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³³⁾고 독립을 희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재조일본인의 조선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모멸의식에 반감을 표시한 어느 조선인 총독부 관료가 누설한 ‘목소리’는 없어지고 체제융합적인 “일본인이 되고 싶다”고 심신으로 바란 조선인들의 ‘목소리’만 다수 반항하게 된다.

이상으로 ‘조선(급만주)의 조선인 기고가와 그 기사에 관한 기초 데이터를 개관해보았다. ‘조선(급만주)에 조선인이 쓴 기고문의 비율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잡지의 성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당연한 결과이자, 이 잡지가 갖고 있는 조선인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시대변천에 따른 기사의 양적 변화를 살펴보면, ‘무단통치’시절에는 ‘조선(급만주)에 조선인이 쓴 기고문이 전혀 게재되지 않았지만, ‘문화통치’로 식민지 통치정책이 바뀌자 이에 연동하듯이 조선인의 기고문의 양도 점차 증가하였다. 30년대에는 조선인의 기고문이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인’의 ‘목소리’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910년대에는 매우 미미하지만 존재했던 피식민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조선인들의 ‘목소리’는 통치이념의 ‘확성기’로 변용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선(급만주)에는 다양한 분야의 상류 엘리트층들의 조선인들이 기고했으며 그 중에서도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관료, 제계인사, 문인들이 많은 것이 특징적이고 친일행각을 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식민지 당시 친일적인 성향, 그것도 일제의 신임을 얻을 만큼 적극적인 친일성향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연기 힘든 직종인 총독부 관료직이나 경제계 쪽의 직종, 그리고 그 외 친일인사들의 기고문이 많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은 기무라 겐지의 지적대로 조선인의 동화나 ‘계발’작전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친일적인 조선인의 발언을 게재했다고 볼 수 있다.³⁴⁾ 이들 기고가들의 친일 행각을 배제하더라도 관변지적 성격이 뚜렷한 ‘조선(급만주)에 기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이 식민지조선의 ‘매판계층(comprador)’이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33) 某鮮人官吏談(1919) 앞의 책, p.43.

34) 木村健二(1989) 앞의 책, p.191.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조선인 기고가들의 글을 ‘친일’이라는 한마디로 속단하고 더 이상의 논의 및 고찰을 정지시키는 단정은 피상적일 수 있고 일변도의 친일파비판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조선(급만주)’라는 미디어에서 이들 조선인 기고가들이 쓴 기고문은 결코 ‘반일’ 혹은 ‘항일’적이지 않다. 그러한 기사는 ‘조선(급만주)’라는 잡지에서는 한편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피식민자이자 매관계층의 ‘목소리’를 ‘친일’이라는 ‘단성’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이들 ‘목소리’가 자아내는 다양한 음색을 ‘협력’이라는 한 음으로 묵살해버린 ‘조선(급만주)’의 식민지주의와 같은 폭력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쓴 일본어 문장에 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본 장에서 제시한 기초 자료가 이러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

Ⅲ. 조선인 기고가들이 쓴 한국문학

‘조선(급만주)’에서 조선인 기고자들은 어떤 주제에 관한 기사를 주로 썼을까. 이에 대한 통계를 내본 결과, 예술분야(문학, 연극, 영화 등)가 36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회분야(시국, 시사문제, 의견, 여성문제 등)가 21편, 그리고 경제가 6편, 조선의 전통풍습을 소개하는 기사가 5편으로 뒤를 이었다.³⁵⁾ 이처럼 조선인 기고가들이 가장 많이 쓴 기사가 예술분야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근대문학에 관한 소개나 평론이 20편으로 조선인 기고문 중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³⁶⁾ 1920년대에는 경제, 농업, 교육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지만, 1928년쯤부터 한국문학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해서

35) 다음은 「조선(급만주)」의 조선인이 쓴 모든 기사를 테마별로 분류한 것이다.

예술	사회	경제	전통 풍습	교육	조선문 화론	스포츠	인물	해외 문화	역사	계만조 선인	농업	종교	지리	의학	법률
36	21	6	5	4	4	3	3	3	2	2	1	1	1	1	1

36) 다음은 주 35)의 표 중 「예술」의 내역을 다시 표로 분류한 것이다.

문학론·소개	소설	실화물	영화·방송	연극	수필	음악	미술
20	4	4	3	2	1	1	1

그 수가 점차 증가해 갔다. 이하, 문학에 관한 글을 종류별로 살펴보겠다.

1. 창작: 소설·수필

「조선(급만주)에 게재된 조선인의 창작물은 단편소설 3편(그 중 한편이 2회에 나뉘어 연재되었기 때문에 주36번에서는 총4편으로 간주하였다)과 수필 1편이 있다. 소설은 이수창의 「괴로운 회상(悩ましき回想)」(1924.11), 정도희의 「연주회(演奏會)」(928.11), 김명순의 「인생행로난(人生行路難)」(1937.9~10)이고, 수필은 이효석의 「북만주 소식(北滿だより)」(1939.11)이다. 이수창이나 정도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나 연구는 현재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수창은 1920년대 중엽부터 말에 걸쳐 신문이나 잡지에 평론이나 일본어 작품, 이광수 작품의 일역 등을 다수 기고한 작가였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³⁷⁾ 그리고 김명순은 한국 신문학 최초의 여류시인 겸 소설가이자, '창조' 동인인 탄실 김명순이다. 그러나 최근에 보완된 김명순 작품연보³⁸⁾나 연구서에서도 「인생행로난」에 관한 항목이 게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신혜수에 의하면, 1930년대의 한국문단에는 김명순(金明順)이라는 이름의 남자작가가 존재했으나, 金明淳과 金明順의 한자독음이 동일하여 김명순(金明順)의 작품을 후세의 김명순(金明淳) 연구자들이 그녀의 작품으로 착각하여 작품연보에 기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³⁹⁾ 작품의 완성도나 경향 등으로 미루어 보아 김명순(金明淳)의 다른

37) 필자가 조사한 당시 신문 잡지에 발표된 이수창의 작품 및 번역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소설: 「愚かなる告白」 朝鮮公論, (1924.11)
 「或る鮮人求職者の話」 朝鮮公論, (1925.1)
 「或る面長とその子(1)~(2)」 朝鮮公論, (1927.4~5).
 「図書館にて(1)~(6)」 京城日報朝刊, (1928.03.20, 21, 23, 25, 27, 28)
- 수필: 「街に歸りて」 朝鮮公論, (1927.3)
- 평론: 「『無情』の訳後に(1)~(3)」 朝鮮思想通信, (1929.5.22.~24).
 「朝鮮文壇の紹介」 週刊朝日, (1929.10.27).
 「文壇諸家の側面観②~③-横歩廉相變氏」 中外日本, (1928.8.10~11).
- 소설의 번역: 이광수 「血書(1)~(2)」 朝鮮公論, (1928.4~5).
 이광수 「無情(全224回)」 朝鮮思想通信, (1928.8.2~1929.5.9).
 나도향 「啞者の三童」 週間朝日, (1929.10.27).

38) 신혜수(2009) 「부록1 작품연보」 『김명순 문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136-149. 신혜수는 이 부록에서 종래의 잘못된 서지정보를 수정하여 김명순의 작품연보를 보완했다.

39) 위의 책, p.150.

작품들과 거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생행로난」을 탄실 김명순의 작품으로 속단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굳이 부정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도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효석의 「북만주 소식」은 김윤식 역으로 「새롭게 완성한 李孝石全集」⁴⁰⁾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급만주)의 조선 문학에 관한 기사를 고찰한 가지이 노보루(1982)는 「조선(급만주)가 3편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조선인에 의한 창작물을 게재한 점에 관해서 「근·현대 조선 문학을 일본인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약간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게재된 작품들이 모두 문학사에서는 전혀 문제시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작품을 실은 의미가 별로 살려지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하였다.⁴¹⁾

2. 실화물(實話物)

「조선(급만주)에서 조선인에 의해 쓰인 문학관련의 글 중에 특이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1937년에만 게재된 4편의 <실화물(實話物)>이다. 이들 4편의 <실화물>들은 필자의 이름마저 본명인지 필명인지 구분이 가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던 인물인지 그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조선인 필자에 의해서 쓰인 소위 거짓말 같은 <실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제목만 나열해 보면, 「비연 실화 정열의 말로」⁴²⁾, 「사실소설 조선의 여배우를 둘러싼 두 명의 남자」⁴³⁾, 「실화 애인을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한 조선인의 수기」⁴⁴⁾, 「실화 어느 여점원의 비밀」⁴⁵⁾ 등 모두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제목 앞에 “실화”, “사실소설”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이들 이야기가 픽션이 아닌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선정적인 제목 앞에 붙여진 “실화”라는 강조가 오히려 이들 이야기의 진실성을 의심케 한다. 내용은 4편 모두 가벼운 읽을거리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타락한 조선남녀들의 이야기이다. 이들 <실화물>에는 전부 이야기 모두(冒頭)에서 이

40) 이효석(2003) 김윤식 역 「북만주 소식」 새롭게 완성한 李孝石全集, 7권, 창미사, pp.274-279.

41) 梶井陟 앞의 책, p.59.

42) 朱瓊淑(1937) 「悲恋実話 情熱の末路」 朝鮮及滿洲, 第350号, pp.128-130.

43) 李星斗(1937) 「事实小説 朝鮮の女優を繞る二人の男」 朝鮮及滿洲, 第355号, pp.114-116.

44) 李星斗(1937) 「実話 恋人を父より奪つた一鮮人の手記」 朝鮮及滿洲, 第357号, pp.88-90.

45) 明貞基(1937) 「実話 或る女店員の秘密」 朝鮮及滿洲, 第360号, pp.92-93.

이야기의 출처나 게재사유를 짚막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실화물> 게재의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引用① (조선 잡지에 나와 있는 수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흔히 있는 사실로서 조선청년남녀의 생활을 알고자하는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G生)⁴⁶⁾

引用② 여배우에게 정조가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은 촌스러운 것이다.

「여배우에게 처녀는 없다」라는 말은 고금을 통한 확고한 원칙(?)이지만, 반도의 여배우들도 그 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원칙의 적용범위 안에 있다. 이것은 사실이기에 때문에 분개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배우란 그 배경이 은막이든 무대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 하는 소설은 애육과 비애에 지새우는 반도 여배우들 생활의 전형적인 것인 만큼 이를 통해서 조선 여배우들의 편린을 엿보기에 충분하리라 믿는다.⁴⁷⁾

이외에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이성두의 「애인을 아버지로부터 빼앗는 한 조선인의 수기」에서는 아버지의 첩이 된 자신의 첫사랑과 하얼빈으로 난질한 한 조선인커플이 결국은 몰락한 후 정사를 하게 된 과정을 남기 수기를 저자가 우연히 입수해 이를 소개한다고 모두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실화물>의 모두에서는 제시되는 이야기들이 ‘수기’ 혹은 ‘사실’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고 독자 들인 재조일본인들에게는 믿기 힘들겠지만 이 내용들이 “조선청년남녀”의 “전형적인” “생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화물>의 등장인물들의 유형은 청년은 주로 조혼이나 축첩 등 전통적인 악습에 의해서 몰락 혹은 타락하게 되는 전형적인 조선 지주계급의 청년들이고, 여성은 이들 악습의 희생자들이거나 혹은 여배우, 백화점 여점원 등이다. 이와 같이 타락한 조선인 남녀의 이야기를 ‘조선인들의 현실’ 혹은 ‘전형적인 생활’인 마냥 재차 강조해서 이를 조선인 필자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하게끔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선정적일 뿐 아니라, 「문화통치」 이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재조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모멸의식을 내면적으로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46) 朱瓊淑 「悲恋実話 情熱の末路」 朝鮮及滿洲 第350号(1937.1).

47) 李星斗 「事實小説 朝鮮の女優を繞る二人の男」 朝鮮及滿洲 第355号(1937.6).

3. 문학론 · 한국문학 소개 글

『조선(급만주)』에서 조선인이 쓴 기고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 문학론과 한국문학을 소개하고 있는 글들로 20편이나 된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이원규의 조선 민요론 연재와 박명선의 한국근대문학론 연재이다.

20편의 문학론 중 조선총독부 편수학무국에 근무하고 있던 이원규가 쓴 한국문학 소개 글이 8편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급만주)』에서는 가장 먼저 연재되기 시작했다. 이원규는 한국근대문학을 개관한 글 1편과 민요·가요에 관한 글 7편을 기고했다. 가장 먼저 연재하기 시작한 「조선민요의 유래와 민조성의 일단」(1928.7)에서 그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내지인이 “조선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예술이 없는 나라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조선을 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맥이 끊어진 것처럼 누워있는” “조선의 예술을 연구”해보고 싶다고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다.⁴⁸⁾ 이원규는 7편의 민요·가요의 기고문을 통해 조선 민요 및 가요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각 지역의 노래들을 발굴·소개하면서 본격적인 조선 민요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원규의 조선 민요관을 요약해 보면, 민요란 유사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민족정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타낸 그리고 민족정신에 의해서 배양되어 온 민족의 유일한 소리”이자 “자연그대로의 무구한 야성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이다.⁴⁹⁾ 민요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그의 인식은 “유사 이전에 민족의 순진한 감정을 허식도 없이 기교도 없이 그냥 감정이 흐르는 대로 무학자의 입에서 나와 귀로 전해진 것이 지나(支那)의 문자가 유입됨과 동시에”, 향가가 만들어 졌고, “외래문화의 유입 유행과 함께 조선인들의 생활면에서는 일대 단층이 형성되어 마침내 생활 기초를 달리하는 이대 계급의 대립을 보이게 되고”, 지식계층인 상류계층에서는 한시를 읊고 시조를 지었으며, “민족적 특질과 전통적 정신을 지지하는 모든 임무를 부담하게 된 민요는 문화적 저층을 이루는 평민, 서민계층의 구비전승을 통해서 간결 없이 민족 혹은 향토정신의 발달 수호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⁵⁰⁾는 것이

48) 李源圭(1928) 「朝鮮民謡の由來と民族性の一端」 朝鮮及滿洲 第248号、p.32.

49) 李源圭(1928) 「朝鮮民謡の由來と民族性の一端(1)~(3)」 朝鮮及滿洲 第248~250号.

50) 李源圭(1928) 「朝鮮歌謡の史的考察と此に現れたる時代色と地方色」 朝鮮及滿洲 第253号、pp.32-35.

다. 이와 같은 1920년대 '조선(급만주)에서 이원규가 피력하고 있는 민요관은 임경화(2005)가 '근대 한국과 일본의 민요 창출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일병합 이전에는 망국의 소리로 간주되었던 시가가 “민족의 소리로 둔갑하는 절단면에는 일본의 관학아카데미즘 속에서 국가주의적인 계기를 내장시켜 정착해간 ‘민요’개념이 식민지 상황하에 도입된 것이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했으며, 이원규의 민요론이 연재된 1920년대에는 근대에 의해 발견된 ‘민요’라는 개념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정착되어 “가창주체로서의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글을 양상”했었다.⁵¹⁾ 임경화의 연구를 참조해 보면 '조선(급만주)에 연재된 이원규의 민요 및 가요에 관한 문학론 연재도 1920년대 식민지조선에서 펼쳐진 ‘민요’를 키워드로 전개된 담론 공간 형성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원규가 그 연재에서 조선민요의 특징, 즉 조선 민족의 특징으로 재차 강조하고 있는 “낙천성”의 의미부여는 다른 민요론과의 비교고찰을 통해서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고려된다.

'조선(급만주)의 조선인이 쓴 문학론 연재 중 1920년대에 이원규의 연재물이 눈에 띄었다면 30년대에는 박명선의 한국근대문학론 연재⁵²⁾가 주목할 만하다. 박명선은 그 여명기서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근대문학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의 치밀함과 정밀함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가지이 노보루(1982)도 박명선의 일련의 기사는 “당시의 다른 어떤 잡지(일본어로 발간된)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기획이고 금후 여전히 연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⁵³⁾고 평가하고 있다. 박명선의 일련의 근대문학론이 연재된 1939년은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이 등장하고 한국근대문학의 암흑기였다. 이러한 문단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동시대의 “조선(어) 문학”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그 가치를 논하고 평하고 있는 박명선의 일련의 글들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동시대의 한국문학을 체계적으로 논하고 있는 문학

51) 임경화(2005) 「민족의 소리로서의 민요」, 『근대 한국과 일본의 민요 창출』, 소명출판, pp.158-166.

52) 朴冥善(1939) 「朝鮮新文學の搖籃時代」 『朝鮮及滿洲』 第377号, pp.39-42.

_____(1939) 「大戦直後の朝鮮文學」 『朝鮮及滿洲』 第378号, pp.43-45.

_____(1939) 「朝鮮に於ける傾向文學」 『朝鮮及滿洲』 第379号, pp.41-44.

_____(1939) 「最近の朝鮮文學」 『朝鮮及滿洲』 第380号, pp.36-40.

53) 梶井陟 앞의 책, p.59.

론으로 김동인의 「조선근대문예」(1932.4)가 있지만, 이 글도 김동인의 상세한 저작연보⁵⁴⁾에 게재되어 있지 않는 평론으로 추후 김동인의 저작연보에 추가될 것을 희망한다.

이상으로 '조선(급만주)에 게재된 조선인이 쓴 한국문학관련의 기사를 개관해 보았다. 잡지 전체의 기사량에서 보면 양적으로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오늘날 친일파라 일컬어진 이원규의 민요론과 그 생애나 신원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박명선의 본격적인 한국근대문학론 연재는 특기할 만하다. 1930년대 이후, 현영섭의 조선어 말살론과 같은 노골적인 일제의 식민지 찬양론이 지면을 차지했던 '조선(급만주)에서 -비록 그것이 일본의 관학아카데미즘에 의해 도입된 현상이었다 하더라도- 민족의 원시적 소리의 흔적을 기록하고, 동시대의 조선어 문학의 가치를 논한 이들 기고문의 기저에서 피식민자들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학론에 반해 조선인들의 창작물의 완성도가 눈에 띄게 낮은 것도 잡지창간 당초부터 「문예」란을 설치한 본지로서는 이질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소위 <실화물>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조선(급만주)가 조선인 작가들에게 기대한 것은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순)문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현 단계에서는 필자에 관한 정보 보충이 요구되며 각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IV. 마치며

이상으로 '조선 과 '조선급만주'의 조선인 기고가 및 그들이 쓴 기사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했다. 조선인이 쓴 기고문은 양적으로는 많지 않았지만, 조선인 기고가들은 다양한 분야의 상류 엘리트층이 주로 기고를 했으며 친일적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선인이 쓴 기사의 증감은 동시대의 총독부의 통치정책과 연동해서 변화했음을 확인했다. 1920년대의 기고문의 특징은 시국이나 시사적인 문제에 관한 기사보다는 농업, 경제, 교육

54) 강인숙(1994) 「김동인 작가의 생애와 문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pp.99-124.

등 다방면에 걸친 보고문 혹은 현상을 소개하는 글들이 많았지만, 20년대 말부터 이원규의 일련의 문학론이 연재되기 시작하였다. 1936년 미나미 지로(南次郎)총독의 부임이후 '조선(급만주)에서도 조선인에 의한 노골적인 체제영합적인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하여 조선인 기고자들의 '목소리'는 식민 통치의 '확성기'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이 박명선의 일련의 한국 근대문학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급만주)의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쓴 기고문은 예술분야, 그 중에서도 문학론이나 한국문학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가 가장 많았던 것이 특징적이고 창작 작품이나 <실화물>도 수편 게재되어 있지만 이들 창작물의 위치는 애매하여 앞으로 더 많은 연구고찰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주로 조선인 기고자가 쓴 기사들의 데이터분석과 문학관계 기사들의 기초적인 자료조사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이들 기사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고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같은 테마나 주제에 관한 '조선(급만주)의 다른 기사와의 비교고찰과 시대적 콘텍스트를 읽어갈 계획이다.

참고문헌

- 강인숙(1994) '김동인 작가의 생애와 문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pp.99-124.
- 檀国大学校附設東洋学研究所(2004) 「解題」 '開化期 在韓日本人雜誌資料集：朝鮮 1、' 国学資料院, pp.vii- x v.
- 金尹錫(1936) 「日本精神と朝鮮人」 '朝鮮及滿洲' 第346号, pp.39-43.
- 某鮮人官吏談(1919) 「今後の朝鮮を如何に治むべきか：朝鮮人の不平」 '朝鮮及滿洲' 第144号, pp.42-44.
- 明貞基(1937) 「実話 或る女店員の秘密」 '朝鮮及滿洲' 第360号, pp.92-93.
- 민족문제연구소 편집부(2009)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 朴冥善(1939) 「朝鮮新文学の揺籃時代」 '朝鮮及滿洲' 第377号, pp.39-42.
- _____ (1939) 「大戦直後の朝鮮文学」 '朝鮮及滿洲' 第378号, pp.43-45.
- _____ (1939) 「朝鮮に於ける傾向文学」 '朝鮮及滿洲' 第379号, pp.41-44.
- _____ (1939) 「最近の朝鮮文学」 '朝鮮及滿洲' 第380号, pp.36-40.
- 반민족문제연구소(1993) 「유성준, 유만겸, 유억겸」 '친일파99인' 1, 돌베개, p.251, pp.131-140.
- _____ (1993) 「현영섭」 '친일파99인' 2, 돌베개, pp.66-67.
- 신혜수(2009) 「부록1 작품연보」 '김명순 문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pp.136-149.

- 李星斗(1937) 「事实小説 朝鮮の女優を繞る二人の男」 『朝鮮及滿洲』 第355号、pp.114-116.
 _____(1937) 「実話 恋人を父より奪つた一鮮人の手記」 『朝鮮及滿洲』 第357号、pp.88-90.
 李源圭(1928) 「朝鮮民謡の由来と民族性的一端」 『朝鮮及滿洲』 第248号、p.32.
 _____(1928) 「朝鮮民謡の由来と民族性的一端(2)」 『朝鮮及滿洲』 第249号、pp.33-36.
 _____(1928) 「朝鮮民謡の由来と民族性的一端(3)」 『朝鮮及滿洲』 第250号、pp.38-42.
 이호석(2003) 김윤식 역 「북만주 소식」 『새롭게 완성한 李孝石全集』 7권, 창미사, pp.274-279.
 임경화(2005) 「민족의 소리로서의 민요」 『근대 한국과 일본의 민요 창출』 소명출판, pp.158-166.
 임성모(2007) 「월간 조선과 만주, (朝鮮及滿洲)해제」 『조선과 만주 총목차·인명색인 어문학사』, p. ix.
 張憲植(1919) 「朝鮮の時局に就て：内鮮人共に反省を要す」 『朝鮮及滿洲』 第149号、pp.32-34.
 정병호(2008) 「20세기 초기 일본의 제국주의와 한국 내 〈일본어문학〉의 형성 연구-잡지 조선(朝鮮, 1908-11)의 「문예」란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学』 37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409-425.
 朱瓊淑(1937) 「悲恋実話 情熱の末路」 『朝鮮及滿洲』 第350号、pp.128-130.
 최혜주(2005) 「한말 일제하 샤쿠오(釈尾春苐)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45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5-56.
 _____(2008) 「잡지 《朝鮮》(1908~1911)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45호, 한국근현대사학회, pp.80-115.
 _____(2010) 「잡지 『朝鮮及滿洲』에 나타난 조선통치론과 만주 인식」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62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35-76.
 玄永変(1936) 「政治論の一齣=文学者の立場から=」 『朝鮮及滿洲』 第346号、pp.44-46.
 梶井陟(1982) 「雑誌 朝鮮 ならびに 朝鮮及滿洲 における朝鮮文学の意義—特に近・現代文学をめぐる」 『富山大学人文学部紀要』 vol.7, 富山大学人文学部, pp.47-83.
 木村健二(1989) 「在朝日本人ジャーナリズムの活動」 『在朝日本人の社会史』 未来社, pp.152-207.
 渡邊天倪(1910) 「朝鮮人士の対日感想」 『朝鮮』 第26号、p.15.

- ❖ 투고일 : 2010. 6. 30.
- ❖ 심사일 : 2010. 7. 14.
- ❖ 심사완료일 : 2010. 8. 2.

<附表>

「朝鮮」·「朝鮮及滿洲」의 조선인 기고문의 일람표

筆者	題目	雜誌·号	年月
鄭雲復	韓国暴徒問題に就て 九	朝鮮1	1908.3
鄭雲復	大韓協會の本領	朝鮮1	1908.3
鄭雲復	敢て日本人諸君に告ぐ	朝鮮3	1908.5
韓竜相	韓国側の金融状態	朝鮮7	1908.9
金鎮玉	最近に於ける韓人側の商勢	朝鮮7	1908.9
鄭雲復氏談	統監の交代に対する世評	朝鮮16	1909.6
韓國法官某氏談	韓國の裁判所	朝鮮16	1909.6
石鎮衡	「ヨボ」と云う語に就きて	朝鮮及滿洲63	1912.11
尹喜永	支那と朝鮮との国葬儀禮比較	朝鮮及滿洲141	1919.3
印東秀	講和會議の開られつ々ある巴里の春	朝鮮及滿洲141	1919.3
某鮮人官吏談	今後の朝鮮を如何に治むべきか：朝鮮人の不平	朝鮮及滿洲144	1919.6
張憲植	朝鮮の時局に就て：内鮮人共に反省を要す	朝鮮及滿洲149	1919.11
崔在鶴	内鮮人共学の可否：共学は内鮮人生徒の何れにも利益で無い	朝鮮及滿洲169	1921.12
鄭大鉉	内鮮人共学の可否：必ずしも共学の要を認めず	朝鮮及滿洲169	1921.12
韓翼敬	軍備縮小に依つて得た剰余金を朝鮮にも分割せよ：国民の資力を養成せよ	朝鮮及滿洲171	1922.2
李寿昌	悩ましき回想（悩ましき回想／T博士との対話）	朝鮮及滿洲204	1924.11
鄭泰述	朝鮮文化に就ての一考察	朝鮮及滿洲205	1924.12
朴重陽	忠北の蚕業に就て =洋々たる将来を有する=	朝鮮及滿洲209	1925.4
李軫鎬	朝鮮教育の回顧	朝鮮及滿洲214	1925.9
金商範	朝鮮の正月の慣習	朝鮮及滿洲230	1927.1
李周淵	私の目に映じたアメリカ人氣質	朝鮮及滿洲232	1927.3
李軫鎬	過去二十年間に於ける朝鮮の教育の發達	朝鮮及滿洲233	1927.4
兪万兼	朝鮮宗教界の変遷	朝鮮及滿洲233	1927.4
李基世	朝鮮に於ける演劇の変遷=鮮人方面の=	朝鮮及滿洲234	1927.5
金翰洙	京城本町を中心に小公園の必要 :教育敷地の一部は公開しても善い	朝鮮及滿洲236	1927.7
李源圭	朝鮮民謡の由来と民族性の一端(1)	朝鮮及滿洲248	1928.7
李源圭	朝鮮民謡の由来と民族性の一端(2)	朝鮮及滿洲249	1928.8
李源圭	朝鮮民謡の由来と民族性の一端(3)	朝鮮及滿洲250	1928.9
丁甸希	創作:演奏会	朝鮮及滿洲252	1928.11
李源圭	朝鮮歌謡の史的考察と此に現れたる時代色と地方色	朝鮮及滿洲253	1928.12
李源圭	朝鮮歌謡の史的考察(1)	朝鮮及滿洲254	1929.1
李源圭	朝鮮歌謡の史的考察(2)	朝鮮及滿洲256	1929.3

李源圭	朝鮮歌謡の史的考察(3)	朝鮮及滿洲259	1929.6
李光天	朝鮮の近代俗謡に対する一考察	朝鮮及滿洲262	1929.9
李源圭	最近に於ける朝鮮文芸総観	朝鮮及滿洲263	1929.10
崔完奎	世界的大鐘乳洞蝸竜窟探険記	朝鮮及滿洲263	1929.10
李光天	朝鮮の正月	朝鮮及滿洲266	1930.1
金素雲	朝鮮人の性格	朝鮮及滿洲268	1930.3
金明学	ホルモンの学説	朝鮮及滿洲272	1930.7
朴書房	朝鮮の古書に現れた金と女の天下	朝鮮及滿洲279	1931.2
尹相弼	在滿鮮人の救済に就いて	朝鮮及滿洲291	1932.2
李書房	朝鮮の社会層を貫きて	朝鮮及滿洲291	1932.2
金東仁	朝鮮近代文芸	朝鮮及滿洲293	1932.4
金井鎮	朝鮮人側の放送プロに就て	朝鮮及滿洲316	1934.3
崔載瑞	詩人対行為人	朝鮮及滿洲317	1934.4
崔載瑞	詩人と人間苦	朝鮮及滿洲325	1934.12
崔淳文	朝鮮女性の家庭問題—偶感—	朝鮮及滿洲330	1935.5
金黙照	心田開発の実行促進案	朝鮮及滿洲334	1935.9
李大山	朝鮮音楽断想	朝鮮及滿洲338	1936.1
安碩柱	朝鮮の映画の話	朝鮮及滿洲338	1936.1
徐恒錫	最近朝鮮の演劇界	朝鮮及滿洲338	1936.1
李鮮光	朝鮮文壇作家の素描	朝鮮及滿洲339	1936.2
玄永変	政治論の一齣=文学者の立場から=	朝鮮及滿洲346	1936.9
金尹錫	日本精神と朝鮮人	朝鮮及滿洲346	1936.9
金大羽	朝鮮に於ける児童及び母性に関する社会事業	朝鮮及滿洲348	1936.11
金大羽	朝鮮に於ける児童及び母性に関する社会事業(続)	朝鮮及滿洲349	1936.12
朱瓊淑	悲恋実話・情熱の末路	朝鮮及滿洲350	1937.1
金正祿	京城株街の景气	朝鮮及滿洲350	1937.1
玄永変	英国の新聞雑誌研究	朝鮮及滿洲351	1937.2
玄永変	現代朝鮮文化論(上)	朝鮮及滿洲354	1937.5
玄永変	現代朝鮮文化論(下)	朝鮮及滿洲355	1937.6
李星斗	事实小説 朝鮮の女優を繞る二人の男	朝鮮及滿洲355	1937.6
李星斗	実話 恋人を父より奪つた一鮮人の手記	朝鮮及滿洲357	1937.8
玄永燃	非常時局と朝鮮人の覚悟	朝鮮及滿洲358	1937.9
金明淳	小説 人生行路難	朝鮮及滿洲358	1937.9
朴漢洪	北支戦線に於ける朝鮮人義勇隊の活動	朝鮮及滿洲359	1937.10
金明淳	小説 人生行路難(続)	朝鮮及滿洲359	1937.10
明貞基	実話 或る女店員の秘密	朝鮮及滿洲360	1937.11
李斗峰	朝鮮新人評判記(1)	朝鮮及滿洲362	1938.1
金漢一	時局と朝鮮人インテリ	朝鮮及滿洲362	1938.1

李斗峰	朝鮮新人評判記(2)	朝鮮及滿洲363	1938.2
玄永燮	內鮮一體と內鮮相婚	朝鮮及滿洲365	1938.4
李斗峰	朝鮮新人評判記(3)	朝鮮及滿洲366	1938.5
朴興仁	朝鮮の伝説	朝鮮及滿洲369	1938.8
張承斗	朝鮮古代神話と「父」の生理的意義-古代母權家族制度の一考察-	朝鮮及滿洲372	1938.11
玄永燮	京城の生活断想	朝鮮及滿洲375	1939.2
李遠雨	左翼轉向者の見たる朝鮮經濟事情	朝鮮及滿洲375	1939.2
朴冥善	朝鮮新文學の搖籃時代	朝鮮及滿洲377	1939.4
張承斗	古代族稱より觀たる內鮮一體	朝鮮及滿洲377	1939.4
朴冥善	大戰直後の朝鮮文學	朝鮮及滿洲378	1939.5
朴冥善	朝鮮に於ける傾向文學	朝鮮及滿洲379	1939.6
朴冥善	最近の朝鮮文學	朝鮮及滿洲380	1939.7
玄永燮	時局に関するそくばくの言葉	朝鮮及滿洲381	1939.8
沈春童	狂詩の天才金笠(1)	朝鮮及滿洲381	1939.8
沈春童	狂詩の天才金笠(2)	朝鮮及滿洲382	1939.9
李孝石	北滿だより	朝鮮及滿洲384	1939.11
金斗禎	新東亞建設に於ける思想報國の重要性	朝鮮及滿洲385	1939.12
南旗郎	映画令と朝鮮の映画界	朝鮮及滿洲386	1940.1
徐廷億	朝鮮のスポーツ界	朝鮮及滿洲386	1940.1
徐廷億	朝鮮スポーツ界の展望	朝鮮及滿洲390	1940.5
李相仁	現代朝鮮の文芸、美術界を展望す	朝鮮及滿洲395	1940.10.
崔完錫	貨幣・価値・金に就て	朝鮮及滿洲396	1940.11
李鐘鎭	朝鮮の風俗風習に就て	朝鮮及滿洲396	1940.11
徐廷億	半島体育界の近況	朝鮮及滿洲398	1941.1